#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과 워십댄스 리더십과의 관계 :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박순자(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강미리(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수료)

**논문초록**

본 연구는 워십댄스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신약성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에 기초하여 워십댄스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피는 목적하에 신학적인 고찰을 하였다.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에 관한 본 연구가 오늘날 기독교의 한 문화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워십댄스 발달을 위한 리더십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좀 더 바람직한 워십댄스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영적 리더십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도바울, 지도자, 영성, 워십댄스 리더십, 고린도전서

## Ⅰ. 서론

오늘날의 예배(禮拜)는 다감각적인 토대 위에 '참여와 공동체의 영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정적으로만 드리기보다 자유로움의 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문용식, 2007: 163). 이러한 동(動)적인 면을 강조하는 예배의 경향[1]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장르로 워십댄스(worship dance)가 보편화되었고, 복음을 표현한 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복음을 표현한 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반복되는 예배방식에 타성적으로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선함을 줌으로써 춤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전유오, 1995: 92). 이에 교회 내에서는 특별한 절기 예배와 각종 전도축제, 찬양예배 및 기타예배, 그리고 정기예배 시 헌금특송 등 한 순서의 형태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외의 선교사역(mission and ministry)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한 역할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몸짓을 통한 복음적 시각의 효과로 인해 공동체의 영성과 믿음을 위한 가능성의 도구로 워십댄스가 점차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음(福音, good news)을 위한 춤이 되기까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묵상의 되새김질을 반복한 워십댄스 구성원들은 그 영적인 감동을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표현하기에 힘을 쓰고, 동역자(同役者, fellow worker)[2]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회중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몸짓으로 표현되기까지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이렇듯 워십댄스는 회중들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앎으로 회중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를 놓아야 할 것이다(Carla, 1997: 54). 이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할 대상은 워십댄스를 지도하고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소유한 리더는 워십댄스를 접하는 회중들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워십댄스 리더는 하나님과 회중들 사이에서 '영성의 중개역할'을 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팀을 이끄는 리더십(leadership)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엡 4:12) 워십댄스 리더의 직분(職分)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의뢰된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하느라 분주하여, 어느 순간 지도자로서의 방향성을 상실하였을 때 이에 즉시 적용할 지침서가 있는가?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며(고전 12:25),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권면의 말씀 앞에 구성원들의 분쟁이 있을 때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고

---

1)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문화와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보수적이고 정적이던 기독교 예배가 '찬양 예배 (hymn service)'와 '열린 예배(seeker's service)' 형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예배 중 무용(dance)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창작의욕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장소희, 2002: 1). 또한 현대 교회가 당면한 글로벌 시대의 세계화 흐름 속에 행동성 있는 참여적 예전으로서 전통과 변화가 잘 조화된 '입체예배(action liturgy)' 형식을 제안하였다(허정갑, 2006: 4).

2)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좁게는 모든 교역자에게, 넓게는 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다(롬 16:3,9,21; 고전 3:9; 고후 8:23; 빌 4:3; 골 4:11; 살전 3:2; 몬 1:1,17,24).

전 10:31)고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워십댄스 리더십을 발휘하였는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막 10:44) 매시마다 인지하여 구성원들의 종(slave)이 되어 섬기기 위한 리더십 노하우(know-how)가 있는가? 만약 이것을 점검해주고 해결해주며 적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의 지침서가 없다면, 워십댄스 리더는 방향감각을 순간 상실해버릴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리더에게 찾아올 경우 리더십의 방향성을 잡아줄 모델이 필요한데, 학계에서는 워십댄스를 지도하는 리더십에 있어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는 단 1편으로 선교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연구만이 있었기에 영적 리더십을 갖춘 워십댄스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이 워십댄스 리더십에 방향감각을 설정해주고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사도바울[3]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시대 안에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使徒, apostle)[4]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 복음사역에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여준 지도자였다(백형종, 2009: 179). 하나님의 뜻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바울은 복음의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였고, 그 영향력이 강하였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지역 등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웠다[5]. 신약성서 사도행전 14장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등지에서 행했던 바울의 전도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그 중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행 14:10)이 일어나자 놀란 군중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 가운데 내려왔다고 하여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정도로(행 14:11-13) 전도의 효과는 막대했다(한제호, 2005: 7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확장되는 중심에 절대적으로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지도자적 영성을 크게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이 생전에 사도인가에 관한 물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중점적으로 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빌립보서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조경철, 2005: 90). 또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때까지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함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지상명령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다(Horsley, 2007: 28). 그 중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공동체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여러 경

---

3)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다.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유대인이었지만 당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바리새인이었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으나 이 열심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다마스커스)으로 가던 중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도바울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은 삶을 마칠 때까지 약 30여년간에 걸쳐 광범위하였다(정연락, 2000: 41-42).

4) 이방인(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행 9:15), 이방인의 빛(행 13:47).

5) 사도행전에 기록된 13:13-52(비시디아 안디옥), 14:1-7(이고니온), 14:8-28(루스드라, 더베, 버가), 16:11-15(빌립보), 17:1-9(데살로니가), 17:10-15(베뢰아), 17:16-34(아덴), 18:1-17(고린도), 19:1-20(에베소) 참조.

우를 찾아볼 수가 있으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울의 편지이다. 고린도전서와 같이 초대교회의 실상과 허실(虛實)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함이 넘치도록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없다. 다른 어떤 서신보다 수많은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면 오늘날 교회 내에서 발생되는 갈등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묵, 2014: 6).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교회예배 안에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워십댄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요소로 신약성서 중 교회 공동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교회의 여러 갈등문제를 놓고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이 발휘된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현재 워십댄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 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독교 역사상 모범이 된 사도바울의 영성을 고찰,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워십댄스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워십댄스의 현황과 리더십(개념, 범주, 유형, 역할, 효과, 문제점 및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신약성서 고린도전서의 신학적인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바울의 리더십과 영성을 연구한다. 셋째,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나타난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과 워십댄스 리더십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통해 기독교 내 워십댄스 지도자의 리더십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Ⅱ. 워십댄스의 현황과 리더십

워십댄스(worship dance)란 무엇인가? 최근 새로운 예배문화의 한 요소로서 단순한 율동 이상으로 흔히 '몸찬양'이라 불려지는 일종의 '예배춤'을 가리키고, 영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worship'은 앵글로색슨어인 'weothscipe'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치(worth)'와 '신분(ship)'의 합성어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스펠서브, 2013). 용어와 관련하여 히브리어 원어로 예배는 '아바드'로 '봉사'와 '섬김'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샤하아'라는 단어는 '굴복하다' 또는 '자신을 엎드리다'의 숭배와 순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한재선, 2008: 71). 따라서 '워십댄스'는 존귀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찬양으로 봉사와 섬김, 굴복함의 숭배와 자신을 엎드리는 순종이 내재되어 있는 예배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춤을 의미하는 'Dance'의 어원은 '생명의 욕구'를 뜻하는 것으로, 몸과 영이 하나가 되도록 설계된 사람은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춤이 반드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예배의 풍성함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Frame, 2000: 199).

이렇듯 예배의 모습들을 근거로 하나님께만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춤 혹은 무용을 워십댄스라 하며(이신영, 2001: 60),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찬양과 함께 신체의 움직임으로 고백하는 교회 안의 활동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무용 등의 교회 밖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조혜경, 2008: 64). 찬양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신체의 움직임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워십댄스는 교회 안의 활동에서나 교회 밖의 활동에서 찬양과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서의 음악은 전통적인 오르간 음악과 찬양대 음악, 복음성가를 포함한 기존의 찬송가, 현대적 음악 형식을 취한 독창 또는 중창 위주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찬양과 경배 음악이 함께 사용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하재송, 2011 : 244). 이러한 영향에 찬양과 경배를 목적으

로 활발하게 제공되는 찬양음악을 통해 워십댄스는 다감각적으로 각 찬양의 가사에 맞게 다양한 예배 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 형식을 취한 찬양과 함께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면서도 현대 신앙인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워십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독무(solo dance) 혹은 군무(group dance)[6]의 형태로 나름의 질서가 있는 구성력을 갖추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워십댄스를 행하는 주체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굴복과 순종의 움직임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인 것이다. 춤을 통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은혜를 몸의 육체성을 통해 가시화하여 샬롬을 실천하고(졸저, 2007: 108),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만져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문용식, 2007: 167). 예배자로 서는 예배의 춤에 있어 사랑의 고백이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아내듯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마 22:37), 이웃을 자신과 같이 돌보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다(마 22:39).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느껴지게 하고 만져지게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회중들에게 내면의 은혜로 표현이 되어 샬롬(שלום, 평강)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순자(2004)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는 몸짓, 율동(워십댄스 포함)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을 기독교적 무용이라고 정의하며, 8가지의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드리는 무용 : 정기예배, 특별예배, 기타예배
2) 교회에서 영적 부흥을 위해 사용되는 무용 : 정기적인 집회
3) 교회에서 성도간의 교제를 위해 사용되는 무용 : 환영 및 축복, 결혼축무 등
4) 교회에서 영·유아부, 초·중·고등부, 대학생 및 청·장·노년부에 이르도록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무용
5) 성도 및 일반인들의 건강과 효과적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무용
6)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용
7) 공연예술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용
8) 신학대학 및 신학원 등 기독교적 교육기관(선교원, 유치원, 대안학교 등)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무용이다.

실제 워십댄스는 위의 8가지의 범주처럼 교회 안에서의 활동(예배, 영적부흥과 성장, 성도간의 교제, 복음전파)과 교회 밖에서의 활동(전도, 공연예술, 신학대학 및 신학원, 기독교 교육기관)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움으로 다음세대(next generation)의 영적성장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추세다. 워십댄스 교육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신정(2006)에 따르면 교회에서의 무용은 신체와 음악, 영성이 조화되어 신앙에 유익을 주는 활동으로 전 연령층(어린이, 청소년, 장년, 장애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정서를 심화시켜주며, 지적활동을 동반하여

6) 둘 이상이 함께 추는 것으로 2인이 추는 춤을 듀엣(duet), 3인이 추는 춤을 트리오(trio), 4인이 추는 춤을 콰르텟(quartet), 5인이 추는 것을 퀸텟(quintet)이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인 표현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부터 활동한 워십댄스는 점차 교회 밖에서의 범주로 확장이 되어 사용되며 교육되어지고 있다.

이신영(2001)은 워십댄스를 기독교 무용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기독교 무용은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하여 1980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으로 몸찬양, 수화찬양, 워십댄스, 선교무용, 뮤지컬댄스, 가스펠댄스, 축무,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교회내·외 예배 문화로써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980년대 본격적인 기독교 무용이 활동한 배경에 대하여 면밀하게 설명하자면, 1984년 한국 마라나타 교회를 개척하는데 샤론페리(Sharon Perry)와 함께한 그 무용단이 선보인 한 예배무용에 의해서였다. 한국 교회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무용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신성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의 지도자인 이화여대 송유순 관장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마라나타 교회와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선교단 등에서 무용팀이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워십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배에서 찬양의 한 수단으로 무용이 사용되어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함성애, 2005: 22). 2000년대에는 다양한 워십 강좌와 강습회, 매년마다 열리는 워십댄스 페스티발과 각종 경연대회, 그리고 무용콩쿠르 등이 개최되면서 워십댄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예배춤이 기독교 가운데 성장한 가운데 김종희(2005)는 현대 예배에 따른 기독교 무용의 역할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와 집회에서의 역할 : 언어로만 국한되어 있는 지적 예배체험을 보완하여 전인격적인 체험 중 감정 혹은 정서적인 면에서 풍성한 경험을 돕는 효과
2) 전도 및 선교의 역할 : 복음과 단절되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3) 제자훈련의 역할 : 공동체의 신앙의 영적 성장과 거룩한 삶을 위한 제자훈련 교육의 효과
4) 특별절기 공연의 역할 : 절기의 의미를 더하는 효과
5) 기독교 문화적인 역할 : 국내·외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효과
6) 치유의 역할 : 심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며 치유하는 효과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적 예배체험을 보완하여 기독교의 사상과 종교적 체험 등 전인격적인 체험 및 정서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워십댄스는 예배와 집회, 특별절기에서 그 의미를 더함으로 공동체 신앙의 영적 성장과 거룩한 삶을 위해 제자훈련(disciple training)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워십댄스는 문화적인 역할로 거부감을 감소시키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이 단절되어가는 현대인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된다. 그로인해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치유력(healing power)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정인(2010)은 신학생과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학생의 80.4%와 일반성도의 64.9%가 워십댄스 장르를 접하였고, 기독교 무용을 본 후에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신학생 73.6%와 일반성도 86.8%가 감동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가 기독교 내에서 워십댄스를 접하고 마음의 변화를 응답한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예배와 집회, 전도 및 선교, 그리고 특별절기 등 한 순서의 형태로 예배에 참여한 효과임을 알 수 있으며, 묵상을 통해 표현된 몸짓의 영성이 심리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회중들을 치유하고 감격을 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워십댄스를 포함한 기독교 무용은 21세기에 예배와 전도 및 선교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체득한 워십댄스의 영성으로 회중들에게 감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좋은 장르라고 평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용식, 2007: 177).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묵상을 통한 내면의 은혜와 사랑의 실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워십댄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회중들에게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워십댄스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전인성(wholeness)의 회복(恢復, restoration)과 치유(治癒, healing),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영성 중개 역할로 중요성을 띄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다시 최근 현대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돌아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워십댄스에 관해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하재송(2011)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찬양사역과 워십댄스를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타 예술 분야들에 비해 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의 편차가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도 워십댄스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적 예배의 형식에서 참여의 형태로 증대되고 있는 워십댄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들이 문제제기 되어져 왔는가?

윤초롱(2002)은 한국 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에서 기독교무용단체 지도자들이 언급한 기독교무용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전문성의 부족과 영성의 부족이라 하였다. 그들이 지적한 '전문성'은 학문적인 정립도 포함하는 것이며, 일반화된 무용과의 차별성을 요구하기에 성서적인 의미를 인식한 전문성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영성'은 예배를 돕는 효과적인 역할 감당을 포함하며, 영적인 감동과 영향력 기대를 뜻하는 것이다. 이외에 문제점으로는 의상이나 분장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과 신학적 바탕의 결여, 그리고 용어사용의 혼란 등 전문성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양성되어 개교회로 배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함성애(2005)의 기독교 무용이 예배에 있어서 방해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산만한 모습, 전문성의 결여나 무용인의 예배의식 결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혜경(2008)은 현 기독교 무용의 실체와 미래 방안을 모색한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전문적인 워십댄스 교육을 할 교육환경이나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예배나 특별순서의 무용 공연인 경우에 짧은 시간과 부족한 공간의 여건으로 인하여 큰 감동으로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워십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상체중심의 율동과 찬양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 워십댄스를 영적으로까지 교감이 가능한 무용동작을 개발함으로써 친화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무런 성찰과 분별함 없이 단지 동시대의 감수성에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거나 예배와 선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필요에 의해 무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기독교적 영성과 경건함을 희화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 하였다.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를 분석한 이정인(2010)은 신학생과 일반성도에게 기독교무용 개선점을 물은 결과, 더욱 깊은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성경을 주제로 한 내용을 우선으로 테크닉 안무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독교 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예배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이한나(2010)의 연구에서는 기독교무용 발전의 장애요소로 한국 교회가 예배와 선교

에 있어서 무용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함과 소명을 가진 기독 무용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재송(2011)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워십댄스를 언급하였는데, 워십댄스에서 사용되는 의상과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최수진(2016)은 현대교회 내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전도사, 강도사, 목사)에게 기독교 무용 인식에 관해 묻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개선방안으로 이해되지 않는 작품내용을 개선해야 하고, 타 문화권 선교에서는 선교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 작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영적성장과 성령충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무용의 한 가지 기능적인 요소로는 진정한 기독교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요소들의 핵심은 크게 영성(靈性)과 전문성(專門性)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영성'은 성령충만과 영적성장으로 인해 회중들에게 영적감동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전문성'은 학문적 정립과 성서적 의미를 인식한 예술적 표현과 의상 및 분장, 이해되지 않는 작품내용을 개선하고 영적교감이 가능한 동작을 개발하는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양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동작들을 안무함으로 교회 안에서 무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臨在, presence)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활성화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교육되고 훈련되어져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양성되어야 한다(최재윤, 2003: 90-91). 이렇듯 워십댄스 지도자들이 더욱 영적인 훈련을 받고 양성되어야 할 중요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그 문제점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최근에는 지도자의 리더십(leadership)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선교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한 조선의(2016)는 구약시대의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 룻, 에스더의 리더십과 현 기독교무용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인터뷰함으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영성리더십으로 선교를 위한 무용작품을 지도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지도자는 일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선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영적인 리더십을 완성해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기쁨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섬김의 리더십(봉사와 낮아짐)으로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향해 발휘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셋째, 권위가 아닌 동반자 리더십(협력과 협업)으로 동역자들과의 존중과 믿음, 그리고 하나 됨의 노력이 기독교무용지도자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덧붙여 선교사역을 위한 기독교무용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포럼과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렇듯 기독교무용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리더십을 개발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기독교 내에 참여하는 모든 워십댄스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고찰되는 리더십의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워십댄스의 리더십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calling)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양육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과 굳건한 목표의식, 팀의 방향성을 유지시켜 주는 리더십의 비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방법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워십댄스의 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은 상대방의 성장과 성공에 헌신하며 상호책임

을 지는 것으로 리더는 그들과 함께 공통된 비전과 특별한 행동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조지바나, 2003: 37). 지도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능력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문민성, 2010: 41). 이와 같이 지도자는 워십댄스로 표현되는 몸짓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관심과 주의가 모아지도록 영향력을 전달하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춤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도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워십댄스 리더는 신중하여야 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 받아야 하기에 팀을 세밀히 지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Ⅲ. 신약성서 고린도전서의 이론적 고찰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교회 공동체에 주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다양하다. 1장(인사와 감사, 고린도 교회의 분파문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그리스도), 2장(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성령), 3장(하나님의 동역자), 4장(그리스도의 일꾼), 5장(음행문제), 6장(소송문제, 창녀와의 음행문제), 7장(결혼문제,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8장(우상에게 바친 제물문제), 9장(사도의 권리), 10장(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11장(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의 문제, 성만찬의 제정문제), 12장(성령의 은사문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교훈), 13장(사랑), 14장(방언과 예언문제), 15장(부활문제), 16장(성도를 위한 연보, 권면과 끝 인사)의 흐름으로 발생된 여러 문제에 접근하며 답변하는 편지의 형식이다. 본 장에서는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배경,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과제 등 고린도전서의 신학적인 고견(高見)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고린도 도시에 대해 이해하자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항구 도시이다. 지리적인 중요성을 인식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기원전 44년 로마의 식민도시로 재건되었다(정연락, 2000: 46). 두 개의 항구를 낀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발전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와 각종 종교가 번창했던 도시이다. 각종 종교에 대해 언급하자면 사랑과 미의 여신, 예언의 신, 치유의 신, 결혼과 성생활의 여신 등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고린도 도시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7] 중(50년 또는 51년) 로마에서 온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설립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이다(조광호, 2011: 210). 즉 바울의 선교적인 신념하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직접 말씀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의 개종자들을 얻었으나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웅변술에 능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 교회를 지도하였으며(고전 3:6, 4:6),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신실한 디모데를 보내었다

7)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1-14:28,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36-18:22,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23-21:16을 참조.

(고전 4:17).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으로 추정이 되며, 그들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자와 능한 자가 많지 않았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고전 1:26).

고린도교회의 상황은 고린도전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었다. 고린도전서는 서기 55년경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좋지 못한 소문과 여러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서로, 성도로서의 올바른 생활과 부활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서 그 때 당시의 교회 상황과 문제점을 가장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편지이다. 이는 고린도교회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갈등 문제를 푸는 지침서가 될 뿐 아니라 교훈적, 교리적, 신학적 자료로 남겨져 기독교 신학 체계의 바탕이 되었다(김대경, 2005: 6-7).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 등에 대해 바울은 문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동체의 위험과 위기에 직면한 고린도교회를 영성으로 다시 세우는 과제가 주어졌다.

김영묵(2015)은 고린도교회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바울의 교회론을 연구하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 4장 21절에서의 교회 분열조짐에 따른 문제, 고린도전서 5장 1절 - 6장 20절에서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 14장 40절에서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로 나누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로 크게 나눈 것을 바탕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바울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한 서두의 고린도전서 1장 1절 - 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 - 58절에서 다룬 부활의 문제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상황을 듣고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바울이 문제에 접근하였던 첫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인사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인사 :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전 1:1-4)

감사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5-9)

바울은 편지 서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자신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온유함의 모습으로 다가갔다. 여러 가지의 분쟁을 다루기 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정립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도자적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전 1:1).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밝혔으며(고전 1:2),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였다(고전 1:4).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부함을 인정하였으며(고전 1:7),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

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전 1:8). 즉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바로 권위적으로 무섭게 매를 드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미성숙한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충고하였고(최재후, 2007: 46),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침묵을 거부한 외침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바울은 분열조짐에 따른 문제(고전 1:10-4:21)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게(고전 1:12) 된 것에 대하여 첫 언급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을 제시한다(고전 1:10). 이에 대한 논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고전 1:13)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없이 서로 '하나(one)'로 합할 것을 권하였다. 즉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지도자를 나누어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세상 지혜와 문벌을 따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고전 1:20-25), 십자가의 도만 추구하라고 주장한다(고전 1:18).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면 공동체의 연합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육적인 삶에 있었던 것이다(이민규, 2005: 466). 그러면서 세상의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함으로 세상의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역설적으로 언급하며(고전 1:26-28),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교훈(고전 1:29)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렘 9:23)는 구약의 말씀으로 논증하였다.

고린도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유함과 가난함, 상층사람들과 하층 사람들, 영적 수준의 차이 등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교회의 하나 됨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이것이 각자마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김영묵, 2015: 63-64). 결국 이들의 엘리트 의식과 육적인 잣대가 공동체를 분열의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만 속하여 하나가 되고, 교만함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를 자랑하기를 원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기득권싸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4장에서 '세례',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염두하면 신학적 갈등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이민규, 2005: 469).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전도함은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임을 언급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단순히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기를 원하였다(고전 2:4-5, 4:20). 계속적으로 해당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고전 3:5-9), '하나님의 건물'(고전 3:10-15),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비유는 고린도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외침이요, 비유였다(김영묵, 2015: 188). 덧붙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것(고전 3:23)임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고전 4:1)이라고 언급함으로 공동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또 다른 과제로 교회 안에서의 도덕적인 타락(고전 5:1-6:20)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의 음행문제(고전 5:1)와 성도간의 다툼을 성도 앞이 아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고전 6:1).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음행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고린도교인들의 반응을 연이어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Barrett, 1992: 150). 바울의 주요 관심은 개인의 개별적 죄가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교회가 유지해야 할 거룩함인 것이었다(Hays, 2006: 151).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시한 해결방법은 '공동체의 거룩'이었다. 악의에 찬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고전 5:8), 그리고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고(고전 5:9)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않는 것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또한 고린도교인들이 사창가를 드나들며 창녀와 음행하는 문제(고전 6:15-16)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라고 말하며(고전 6:16),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고전 6:13).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몸 안에 죄를 범하는 음행을 피하며(고전 6:18)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고린도전서에 6장 19절에 신자 개개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다. 특히, 본문에서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여 '거룩한'(ἁγίου πνεύματός)이 강조되었다(권성수, 2000: 579). 즉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사실과 그들은 자신의 몸의 소유자들이거나 실로 그들 자신의 자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Barrett, 1992: 185). 바울은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며 개인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개개인이 모인 고린도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성도들의 몸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고전 6:20)이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14장 40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장이다.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장하기도 하였으나, 그 은사로 인한 교인들의 갈등은 깊었다. 이에 일환으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고전 12:4-11)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고전 12:27)의 비유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 비유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은사문제를 교정하면서 교회의 행동방식을 규정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하여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김영묵, 2015: 190). 사람의 방언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고전 13:1),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고전 13:2).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적으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다(고전 13:3). 이렇듯 바울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쳤다(고전 13:13).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여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하였다(고전 13:4-7). 바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갈등문제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랑을 제시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을 알려주었다. 즉 많은 영적인 은사 위에 더욱 큰 사랑을 제시한 것인데,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고전 14:1).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은혜'라는 개념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었기에 도저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였으나(고전 15:9) 그러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다(조경철, 2005: 93). 그 중심에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고전 15:12)에 몹시 난감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활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을 굳게 지키길 원하였는데(고전 15:2),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고전 15:1-11)이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성경대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 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고전 15:3-8). 즉 바울은 다시 한 번 부활문제를 다룸으로써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우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원하였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사적인 확실성'(고전 15:1-11)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죽은 자들의 부활의 당위성'(고전 15:12-19)을 제시하고,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마지막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죽음까지도 극복시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승리'(고전 15:20-28)를 선언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논박'(고전 15:29-34)과 '부활의 몸에 관해 종자에 관한 비유'(고전 15:35-49)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음을 극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고전 15:50-57)를 말하고 있으며(공건수, 2010: 31-32), 끝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표현하였다(고전 15:58).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권면하면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였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본 바울은 실제로 영적인 위기에 놓이게 된 고린도 교회에 성경적인 지식의 견고한 바탕으로 제시하고, 사실을 정확하면서도 확신있게 전하였으며,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심과 애정이 교회 분열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크게 발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Ⅳ.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리더십과 영성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학자들은 바울을 위대한 사상가나 선교사로만 생각하지만 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가 또한 위대한 영성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홍인규, 2007: 456). 본 장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리더십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던 여러 연구들을 배경으로 리더십과 영성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천에 옮긴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 권위가 주어진 것이며, 또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도였다(조경철, 2005: 92). 그렇기에 그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이야기 하였고(고전 3:2), 논증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구약의 구절이나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며(고전 1:19; 1:31; 2:9; 3:19-20 등), '세상의 지혜'로 요약될 수 있는 수사학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고유한 논설과 어법은 설득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조광호, 2011: 212)고 하였다. 더불어 조광호(2011)는 고린도전·후서를 중심으로 사도바울이 발휘했던 리더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철한 사명의식 :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함축적으로 나타난 바울의 '사명의식'
2) 핵심가치에 집중 :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와 15장 4-9절에 나타난 '부활'
3) 보편성에 바탕을 둔 다양성 강조 :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타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4) 역설로서의 섬김 :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 2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리석음'
5) 본받음 :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본받음', 4장 16절에 나타난 '나를 본받음'
6) 어버이의 심정 :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나타난 '부모의 심정', 9장 2절에 나타난 '신앙의 아버지'

7) 초월적 목표제시 :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타난 '겉사람과 속사람'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고전 9:16)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과제를 완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핵심가치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보편성과 다양성을 두 축으로 균형을 잡히게 한 사고는 자신만 옳다고 하는 독선에 성도들을 빠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가치역전을 논거로 삼아서 잘못된 생각의 오류들을 지적하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설득하였다. 또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머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썼으며(고전 11:1), 성도들에게 바울은 신앙의 아버지인 셈이었는데(고전 9:2), 그들에게 악(惡)에는 어린 아이가 되길 권면하나 지혜에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장성한 성인이 되길 바라였다(고전 14:20). 즉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의 원천은 영성으로 사람이 영적인 생존을 추구하는데 있어 영성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최재후, 2007: 44). 이렇듯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간주한다면, 영성은 삶 전체를 포괄하게 되고 기독교의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Holt, 1994: 19-20)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들의 삶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영성가였다.

한편 사도바울의 리더십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비교 연구한 최재후(2007)는 사도 바울 리더십에 대하여 영적 지혜를 갖고 그 만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영적 의사였으며 영혼의 예술가, 의사소통과 섬김의 달인이었고(로마서) 모든 위험을 지고 결정하였고, 다음 리더의 양성, 외유내강, 극기, 사랑, 조직자(고린도전서)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바울의 리더십을 6가지로 요약하였다.

1)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
2) 사람들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씀
3)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생애를 바침 : 삶을 마칠 때까지 선교활동에 헌신
4) 하나님의 예시를 따르는데 노력함
5) 하나님께 의존적이었고 순종함
6) 겸손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함으로 신약복음서 27장 중 14권을 써서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인물로 솔직한 대화와 사실적인 기록을 한 인물이라 하였으며, 초기 교회에 보낸 서간문을 보면 미성숙한 교인들을 사랑으로 충고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폈다는 평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이며 결단력과 용기, 조직의 단합과 끈끈한 우정, 자기관리 능력, 현실적인 비전제시, 최상을 지향하면서도 국가와 후손에 공헌했던 바울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사도바울의 영적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관계 속의 친밀감과 하나님을 깊이 앎을 통해 영성을 발휘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의 믿음과 주를 더욱 알기에 힘쓴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에 따르려 노력한 바울은 겸손하였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존한 배경에는 겸손과 사랑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영성은 주를 사랑하는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백형종(2009)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관한 고찰 연구에서 바울의 리더십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도로서의 리더십 : 영적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킴
2) 복음을 통한 리더십 :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
3)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 : 군림의 자세가 아닌 위임받은 자로의 모범을 보임이다.

이와 같이 바울의 영적 역량에 크게 기여하고 리더십을 강화시킨 한 가지 요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권위인 사도성에 관한 그의 태도로, 이것이 사도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과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에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그를 만나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를 확고하게 하였고, 복음에 의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고전 9:18)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천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의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한제호(2005)는 선교 초기나 그 이후에 그가 그의 묵시(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 등)적인 설교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그 막대한 전도의 열매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 자신에게 리더십에 대한 확신의 튼튼한 기초를 주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활동에 생애를 바쳤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된 전도의 열매들로 인해 바울의 리더십이 더욱 튼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주권 아래 사도된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위대한 영성가로 이끌어 주었다(고전 2:4-5).

따라서 바울의 리더십과 영성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기반으로 한 영적인 지혜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거하며 사명의식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며 본이 되었던 바울의 노력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 Ⅴ.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과 워십댄스 리더십과의 관계

오늘날의 예배는 보수적이고 정적이던 기독교 예배가 자유로움의 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열린 예배와 행동성 있는 참여적 입체예배가 제안되는 변화에 따라 기독교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예배 중 워십댄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예배는 다감각적인 토대 위에 참여와 공동체의 영성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배 중 한 순서의 형태로 복음을 표현한 춤의 참여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몸짓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로 인하여 공동체의 영성회복을 위한 기독교 문화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중추적으로 감당해야 할 대상은 워십댄스 리더로, 하나님과 회중들 사이에서 영성의 중개역할을 하는 자임을 인식하는 소명감과 구성원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리더십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워십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워십댄스를 지도하는 리더십에 있어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된 것은 단 1편으로 조선의(2016)의 선교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했던 선행연구만이 있었기에 본 연구자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워십댄스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워십댄스의 현황을 살펴보니 학자들은 워십댄스를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춤으로 현대적인 음악 형식을 갖춘 찬양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등 교회 밖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예배를 위해 드리는 춤, 영적 부흥을 위해 사용되는 춤, 성도간의 교제를 위해 사용되는 춤, 영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춤, 성도들의 건강과 효과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춤으로 범주화하고 있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 밖에서의 활동은 비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선교로 공연예술무용을 통한 춤, 신학대학 및 신학원 등 기독교적 교육기관에서 교육되어지는 춤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워십댄스는 다양한 워십 강좌와 강습회, 매년마다 열리는 워십댄스 페스티벌과 각종 경연대회, 그리고 무용콩쿠르 등이 개최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성장이 있기까지는 전환기가 있었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워십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한국 마라나타 교회를 개척하는데 있어 샤론페리와 그 무용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던 예배무용을 선보인 이후 한국 교회에 적용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이 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워십댄스는 현대 예배에서 지적 예배체험을 보완하여 전인격적인 체험 및 정서적인 풍성한 경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현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전도와 선교의 역할과, 제자훈련의 역할, 특별절기 공연의 역할, 기독교 문화적인 역할, 치유의 역할을 함으로 믿음이 없는 비기독교인에게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현대인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되며 공동체 신앙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앞서 밝혀내었다. 이밖에도 학자들은 춤이 반드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예배의 풍성함을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와 음악, 영성이 조화되어 신앙에 유익을 주는 효과를 지닌다고 하였다. 덧붙여 워십댄스의 영성으로 회중들에게 감격을 주며,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르라고 평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면의 은혜를 몸의 육체성을 통해 가시화하여 샬롬을 실천해야할 필요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만져지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워십댄스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워십댄스가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 윤초롱(2002)은 전문성의 부족(학문적 정립과 성서적인 의미를 인식)과 영성의 미흡함(영적인 감동과 영향력)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 하에 이정인(2010)은 더 깊은 기독교적 마인드와 성경을 주제로 한 내용과 테크닉 안무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워십댄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워십댄스의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 요소에 대해 함성애(2005)는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과 산만한 모습을 지적하였고, 이한나(2010)는 한국 교회가 선교와 예배에 있어서 무용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소명을 가진 기독 무용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혜경(2008)은 단순한 상체율동과 찬양의 이해를 돕는 수준이 발전을 막기에 영적으로까지 교감이 가능한 무용동작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아무런 성찰 없이 당대의 감수성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과 이목을 끌기 위한 무용의 무분별함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하재송(2011)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의상과 예술적 표현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윤초롱(2002)의 연구에서도 무분별한 의상과 분장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졌다.

이를 통하여 워십댄스는 2002년부터 꾸준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최근에 연구된 현황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수진(2016)은 현대교회 내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무용 인식에 관해 묻고 분석한 결과로 예배에서의 무용은 이해되지 않는 작품내용을 개선해야 하고, 타 문화권 선교에서는 반드시 선교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 작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영적성장과 성령충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요소들의 핵심은 영성(靈性)과 전문성(專門性)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 무용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워십댄스는 지도자가 먼저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조선의(2016)는 선교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 영성 리더십(영적의 성숙함)과 섬김의 리더십(봉사와 낮아짐), 그리고 동반자 리더십(협력과 협업)을 발휘해야 함을 언급함으로 지도자의 리더십 발전을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었다.

워십댄스의 현황에 있어 현대 예배 안에서 많은 장점과 선교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을 느끼며 기독교 영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도바울의 고린도전서를 고찰하였다. 바울의 많은 서신중에서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는 첫째, 어떠한 서신보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고 둘째, 문제에 직면한 바울이 단순히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차원이 높은 영적인 영성으로 접근함으로 성도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적으로 짚어주고 말씀으로 논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해결책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시대 안에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적인 신념하에 세워진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이방인의 개종자들을 얻으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바울이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그 이후 다른 지도자들을 고린도교회에 보내었으나 실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분열조짐에 따른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성령의 은사문제, 부활의 문제 등 좋지 못한 소문을 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로

서의 올바른 생활에 관해 기록하였다. 바울은 여러 갈등문제를 놓고 무관심으로 침묵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의 모습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고린도교회를 향한 지도자적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한 점에 많은 감동을 주게 된다.

고린도교회가 분열조짐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할 때 비로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분열의 원인이 성도들의 아직 육적인 삶(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잣대와 자랑거리)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십자가의 도만 추구하는 지도력을 펼쳤다. 즉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것을 강조하며 개인의 개별적 죄가 아닌 집합체로서의 유지해야 할 거룩함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바울은 도덕적 타락(음행, 송사문제)에 대하여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며(고전 6:19) 개인의 거룩함으로 강조하면서도 그 개개인이 모인 고린도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성도들의 몸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고전 6:20)이 되는 것과 하나님만 자랑하는(고전 1:29)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은사문제를 교정하면서도 교회의 행동방식을 규정하는데 있어 사랑을 제시하게 된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13장 전체를 할애하여 가르침으로 영적인 은사 위에 더욱 큰 사랑을 제시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적인 확설성과 논박을 통해 믿음을 도왔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만 열중하고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앎에 있어 나오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영적인 핵심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기독교의 영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도바울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교회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성도로서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 권면하고 질책하며 성도들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는데 있어 거침없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고린도전서를 통한 바울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문제 위에 더욱 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영적인 리더십을 제시한 지도자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바울의 리더십 이론을 들여다보니 학자들에게 위대한 영성가라는 평을 받고 있었고, 그가 가진 리더십은 사도로서의 리더십, 복음을 통한 리더십,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세부적인 요소로 그가 발휘했던 리더십은 투철한 사명의식과 핵심가치에 집중, 보편성에 바탕을 둔 다양성 강조, 역설로서의 섬김, 본받음, 어버이의 심정, 초월적 목표제시, 다음리더의 양성, 외유내강, 극기, 조직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하나님을 아는데 힘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생애를 바침, 하나님의 예시를 따르려고 노력함,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순종함,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한 리더십으로 요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논증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성경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하고 있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며 바울의 리더십에서 볼 때 공동체의 영성회복을 위한 중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공동체의 신앙이 영적성장과 성령충만의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있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으며, 복음이 단절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도를 하였다. 이는 워십댄스가 행하고 있는 역할과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리더십에 있어 바울의 리더십을 적용할 때에 영적인 리더십 발전에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워십댄스는 복음을 춤으로 표현함에 있어 세속적인

것에 의존하여 보여주는 동작에 치중하고, 이목을 끌기 위한 의상과 분장으로 산만함을 주며, 이해되지 않는 작품의 개선 및 더 깊은 기독교적 마인드로 작품을 안무할 성서적인 의미가 부족한 것에 비해 바울의 영성을 살펴보니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짐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였으며, 육적인 삶에 머무르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앎에서 나오는 깊은 영적인 지혜로 성도들을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투철한 사명의식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영성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워십댄스 리더십에 적용되게 된다면 2002년~2016년도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 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내에 워십댄스가 많이 보급되고 확장이 되었으나 워십댄스를 지도하는 리더십에 있어서 연구가 부족하였으므로 영적 리더십을 갖춘 워십댄스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약성서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과 워십댄스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기독교 역사상 모범이 되고 열정적 선교를 감당한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첫째,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십이 실천되어야 한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적인 확설성과 논박을 통해 믿음을 도왔고, 자신이 몸소 본이 되어 하나님을 깊이 앎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굴복함에서 나오는 장성함으로 사실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확신의 어법으로 성도들을 사리분별하게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지도하였다. 이는 아무런 성찰함이 없이 당대의 감수성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문제와 영성의 부족(영적인 감동과 영향력, 신학적 바탕의 결여)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더불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사리를 분별하게 되는 영성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영적 리더십을 한층 강화시켜줌으로써 더욱 사려가 깊은 기독교적 마인드로 영감을 불어넣는 작품을 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교감이 가능한 내용과 동작을 개발하게 할 것이다.

**둘째, 사명의식이 투철하여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소명의 확신이 있었기에 사명의식이 투철하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함으로써 바울의 영적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켰다. 위임받은 권위가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어 그가 약 30여년간을 선교활동에만 충실하게 해주었으며, 고린도교회를 향한 지도자적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워십댄스 현황에서 발전의 장애요소로 문제제기 된 요소 중 한국 교회가 선교와 예배에 있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소명을 가진 기독무용인이 부족한 것을 보완시켜 지도자로 위임된 소명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권위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투철한 사명의식은 결여된 전문성을 회복시키고 춤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변을 변화시켜 한국 교회가 워십댄스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 겸손함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삶을 저버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겸손하게 몸소 본을 보이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한 고린도교회의 분열조짐이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문벌을 자랑하는 육적인 삶에 있었던 것을 예리하게 알았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함으로 세상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역설적인 영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워십댄스 현황에 있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던 이목을 끌기 위해 무분별한 동작이 사용되는 산만한 모습과 보여주는 것에 치중한 의상이나 분장, 그리고 일반 무용과의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하여 육적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겸손함의 리더십을 적용할 때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함이 아닌 작품내용에 적합하면서도 알맞은 의상과 분장을 사용하게 해줄 것이며,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동작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거룩함으로 워십댄스를 승화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줄 것이다.

**넷째, 상대방을 섬기며 눈높이로 복음전도를 하는 리더십이 실천되어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인물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져 전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었고, 약한 자들에게 약해진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워십댄스가 정체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할 요소 중 선교지에서는 선교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 더불어 선교지에 적합한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해되지 않았던 작품을 개선하게 함으로 회중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섬기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 비기독교인을 향해 요구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줄 것이다.

**다섯째, 세상을 분별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하여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분파문제에 대하여 간절한 호소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여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연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몸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거룩함'과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의 거룩함'의 목표를 제시하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있는 영성을 발휘하였다. 더 나아가 바울이 영적인 은사 위에 더욱 큰 사랑을 제시하여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는 워십댄스 현황의 목표에 있어 적용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기쁨으로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바울의 지도력을 본받아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할 때 동역자들과의 존중, 신뢰를 이끄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작품을 통해 믿음과 소망을 주더라도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의 지도자적 영성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영적이고 제사장적인 워십댄스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음을 기대해본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바울의 영성 원리를 이해하고 얻은 통찰과 교훈을 실천함으로 오늘날 워십댄스 리더십의 발전에 기여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공건수 (2010).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바울의 부활이해 : 존재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권성수 (2000). 『고린도전서 Ⅰ』. 서울: 도서출판 횃불.
김대경 (2005). 『고린도교회와 바울: 고린도전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김영묵 (2015). “고린도교회의 문제해결을 통해 본 바울의 교회론 :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김종희 (2005). “현대 예배에 따른 기독교 무용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문민성 (2010). “목회자의 효과적인 리더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문용식 (2007). “워십댄스와 영성”. 『기독교언어문화논집』. 11. 162-182.
박순자 (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금광.
백형종 (2009).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관한 고찰”. 『한영논총』. 13. 178-202.
윤초롱 (2002). “한국 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이민규 (2005).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성경과 신학』. 466. 451-477.
이신영 (2001). “한국선교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정인 (2010).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이한나 (2010).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장소희 (2002). “기독교무용의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모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전유오 (1995). “인류학을 통해 본 기독교 문화와 무용예배의 가치Ⅰ”.『무용한국』. 53.
정연락 (2000). “한구석을 밝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의 한구석밝히기 이론과 실천 자세”. 『한구석밝히기』. 1. 36-80.
조경철 (2005). “바울의 사도적인 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1). 89-117.
조광호 (2011). “바울의 ‘카리스마’ 이해와 리더십 : 고린도 전·후서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64. 205-227.
조선의 (2016). “선교사역을 위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조지바나 (2003). 『팀 리더십 파워』. 홍영기 역. 서울: 청우.
조혜경 (2008). “현 기독교 무용의 실체와 미래 방안 모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졸저 (2007). 『성경을 통해 본 문화변혁』. 성경과 문화. 서울: 그리심.
최수진 (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출판사.
최재윤 (2003). “기독교 문화로서의 C.C.D.에 대한 연구 :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최재후 (2007). “사도바울과 이순신 장군 리더십 비교”. 『로고스경영연구』. 5. 37-50.
하재송 (2011).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찬양사역과 워십댄스”. 『개혁논총』. 17. 225-258.
한재선 (2008).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무용의 유형과 현황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한제호 (2005).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의 리더십의 근거: 성경의 묵시론적 해석과 다윗사의 관계”. 『교회와 문화』. 15(2). 69-98.
함성애 (2005).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허정갑 (2006). 『입체예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홍인규 (2007). “사도 바울과 영성”. 『신약논단』. 14(2). 455-489.
Barrett, C. K. (1992). 『국제성서주석 35(고린토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Carla, D. S. (1997). “Liturgical Dance”. 『Liturgical ministry 6』. Spring.
Frame, J. M. (2000).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김광열 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Horsley, R. A. (2007). 『바울과 로마제국: 로마 제국주의 사회의 종교와 권력』. 홍성철 역. 서울: CLC.
Hays, R. B. (2006). 『고린도전서』. 유승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Holt, B. P. (1994). 『기독교 영성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